

정부 “DNA·미래성장 동력 빅3에 12조 투입… 전방위 지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홍남기 ‘혁신성장 빅3추진회의’
DNA 5.9조원, 빅3산업 6.3조원
대규모 민간투자·인력양성 뒷받침
금융지원은 정책금융 등 78조원
바이오헬스,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BIG)3’ 산업에 12조원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백신과 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흥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혁신성장 빅3추진회의를 열어 ‘2022년 DNA+빅3산업 집중육성 실행계획’과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2022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DNA 분야와 빅3 산업에 작년(9조7000억원)보다 25.7% 증액한 12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는 DNA 산업에 5조9000억원, 빅3 산업에 6조3000억원 등이다.

12조원 가량의 뉴딜·모태펀드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66조원 등 총 78조원 규모의 금융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DNA 및 빅3산업 분야 대규모 민간 투자와 인력 양성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빅3산업 3개 분야는 전년보다 29.2% 늘어난 630억 원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NA 분야 중 국내 데이터 시장규모는 2017년 14조4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급성장한 바이오헬스 분야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국산 1호 코로나 19 백신을 상용화하고, 경구용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백신, 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3000억원 규모 민간 설비투자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 올해 안에 바이오헬스 진흥기본법 제정과 바이오헬스 인재혁신방안 마련, 바이오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 핵심 유망분야 육성을 위해 범부처 신약·혁신의료기기·첨단재생의료 등 3개 사업에 금년 3539억원 예산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대부분의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1200개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율주행차에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약자 교통지원, 청소, 순찰 등 7대 공공분야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회색 코뿔소 가시화… 금융안정 만전”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 위원장은 “올해는 차주단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본틀로 하면서 총량규제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위험이 금융시장의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7.1%로 같은해 8월 9.5%보다 낮아졌다. 전국 주택매매가 상승률도 지난해 8월 0.96%에서 10월 0.88, 11월 0.63%로 줄어든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작한 DSR 조기적용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은 규제를 유연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차주단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본틀로 하면서 총량규제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 돼 우리경제의 또다른 뇌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마련한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타격이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업자들이 가계대출도 함께 받아 자금을 확보해 왔다”며 “금리상승까지 더해지면 대출부담이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PAJU
경기지역화폐

22년 1월 설맞이 파주페이 10% 특별할인 혜택

가계부담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올리고

파주 Pay// 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1. 1.(토) ~ 1. 31.(월)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농·축협에서 충전 (단, 50만원 한도내, 예산소진시 까지)

파주Pay(파주페이)란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사용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가 발행하는 카드형 대안화폐

문 의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31-940-4522, -4577 | 코나아이(주) 고객센터 1899-7997